

전북교육청 '거꾸로 멘토링' 눈길

젊은 세대에게서 배운다

자연차 직원 멘토 팀장 이상 멘티 참여 세대 간 소통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전주 객리단길 일대에서 본청 팀장급 이상 직원과 자연차 직원들이 함께하는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MZ세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차 직원 36명과 팀장급 이상 직원 20명 등 총 56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MZ 이해 퀴즈, 보드게임, 인성네트 촬영, 레크리에이션, 디지털 협업 도구활용 등의 미션을 통해 세대 간의 시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 교육감은 밸런스 게임, AI 앱을 활용한 즉석 노래만들기 등에 직접 참여하며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13일 전주 객리단길 일대에서 본청 팀장급 이상 직원과 자연차 직원들이 함께하는 '거꾸로 멘토링'을 운영하는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MZ세대 직원들을 이해하기 위한 퀴즈와 문화 체험 등에 적극 동참해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카드' 교환을 통해 진심을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한 MZ세대 공무원

은 "세대 간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실제 업무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거꾸로 멘토링

은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갑질없는 일터 조성... 전북교육청, 소·중·한 워크숍

내달 19일까지 운영

상호존중 조직문화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소통·협력·청렴'의 시작, 소·중·한 워크숍'을 지난 12일 정읍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총 15차례(아래 표 참조)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소중한 워크숍'은 소통과 협력으로 청렴의 중심에 서서 한마음 되는 변화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조직 내 문제를 구성원이 직접 발견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문화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양성된 청렴 퍼실리테이터 21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관별로 5~6명씩 팀을 구성해 총 3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하며, 각 팀에는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들어가 구



지난 12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소통·협력·청렴의 시작, 소·중·한 워크숍'.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을 촉진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공정한 업무처리 ▲수평적 소통 ▲상호존중 문화 정착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갑질을 뿌리 뽑는 조직문화의 전환'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조직 내 문제를 발굴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

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까지 마련해 나가는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 워크숍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조직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자생적 시도"라며 "청렴 퍼실리테이터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직이 지닌 문제를 발견·개선해 나가는 경험은 매우 소중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 교육의 미래 열다

전북교총 2030 청년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2030세대 청년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을 비롯해 송민주 청년위원장(영전초 교사)과 20여 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청년위원장 인사, 연간 주요사업 공유, 자유 토론 및 제안 발표 등을 통해 청년 교사의 의지와 열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2030 청년위원회는 ▲청년 교사의 협성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 및 소통 간담회 운영 ▲타 시도 청년위원회와의 교류 연수 추진 ▲사이초 2주기 추모제 참여 및 교권 회복 캠페인 전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청년 교사들의 목소리가 곧 전북교총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청년위원회의 활동이 교총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전북교육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민주 청년위원장은 "선배 교사들과의 연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감각과 에너지를 더해 교총 안에서도 더 젊고 유연한 논의와 정책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각오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사회복지상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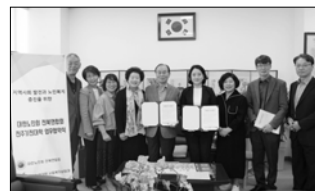
노인회 전북연합회와 협약

전주기전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학과장 이선희)는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두봉)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선희 학과장과 차경선 교수, 김두봉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참여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대강초·중 어울림의 날' 행사

'대강초·중학교 어울림의 날' 행사가 14일 대강중학교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2021년부터 시작된 지역 초·중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 및 문화 공유 활동이다.

2022년에는 디지털 양궁과 심이면체 수학등 만들기 체험, 2023년에는 독도 사랑 주제 활동과 부채 활용 테셀레이션 체험, 2024년은 트리클라이밍(Tree Climbing) 체험을 통해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했다.

이번 행사는 국악을 주제로 한 전문 공연과 체험활동으로 구성,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며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공연으로는 25현 가야금 독주, 전통민요 '산도깨비' 등이 있다.

공연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12현 가야금, 해금, 거문고 등 국악기를 연주해 보는 체험활동, 전통 탈춤 배우기 등이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

미이행 공약 '제로' 실현

전북교육청, 공약 목표달성·이행완료 분야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목표달성 및 이행완료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단 한건도 없는 '미이행 제로' 상태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약을 철저히 관리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행정의 성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 4곳만이 받은 '목표달성·이행완료' 2

개 분야 모두 S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달성 분야는 2018년, 이행완료분야는 2017년 이후 오랜만에 'SA'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집행률도 76.3%로 전국 2위에 올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행정 역량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율려 전북교육청은 2024년 이후 공약관리 규칙 신설, 외부 공약관리위원회 30명 위촉, 공약 누리집 개편 등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도민과의 신뢰"라며 "앞으로도 공약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학생의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업에 꿈의 꽃을 피우다'

제54년차 전북영농학생 축제 14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15일 이틀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제54년차 전북영농학생 축제와 '식품산업 채용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새로운 농업교육의 방향 제시, 농생명분야 우수 인재 육성 및 지도·협동·과학성 제고를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농업에 꿈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도내 농업계열 직업계고 11개교에서 학생과 지도교사 300여 명이 참가해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겨룬다.

주요 내용은 ▲농업 지식·기술을 뽐내는 전공경진 △실무능력을 겨루는 실무경진 △경영 능력 및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 이수 △글로벌리더십 △FFK 골든벨 등 5개 분야 2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영농학생축제 결과에 따라 1등급(금상) 21명, 2등급(은상) 32명, 3등급(동상) 51명에게 각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기부장상을 수여하고, 우수 수상자는 오는 9월 16~18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영농학생축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15일에는 '식품산업 채용설명회'가 함께 열려 식품산업 분야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에는 △CI푸드미 △이성당 △농촌제과 △코코필 등 도내의 유수의 식품기업이 참여해 기업 설명과 채용 정보, 현장 상담 등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농생명 계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학술 전자정보 '한눈에'

15일 전북대 중앙도서관서 박람회 개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설동훈)은 오는 15일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에서 '2025 JBNU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전자정보를 한눈에 구성원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연구와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북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총 22개 학술정보 제공업체 및 기관(전자자료 제공사 21개 부스, 중

앙도서관(FRIC))이 참가해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등 다양한 학술 콘텐츠를 직접 소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술정보 부스 투어 ▲참여형 이벤트 ▲현장 경품 추첨 등이다.

특히 5개 이상 부스를 둘러보고 참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큰사립포인트 10점과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비교과 프로그램 1시간이 인정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Air 11 M3(1명), 소니 헤드셋(2명), 도서관 카페 커피 쿠폰(250매)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학생 중심 취업지원 체계 강화

전북대, 진로·취업 서포터즈 'JBNU-CaReer' 출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생 중심의 진로·취업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JBNU-CaReer' 서포터즈를 선발, 지난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서포터즈는 전북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40명으로 구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진로·취업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와 행사 운영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다.

특히 이번 서포터즈 운영은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구성원 추천 방식으로 진행,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진로·



취업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동유 학생취업진로처장은 "단과대학 중심의 맞춤형 홍보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홍보 효과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진로지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